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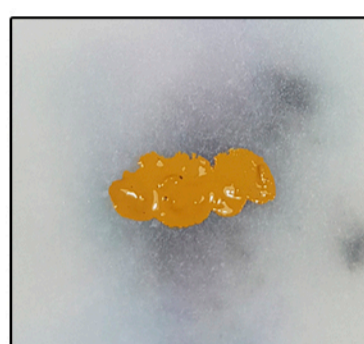
멀티플 씰 코트

단계별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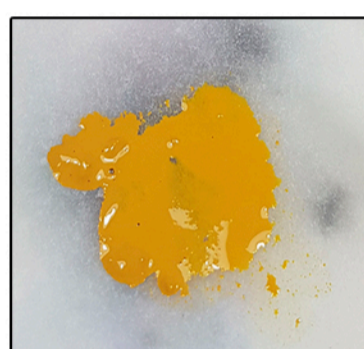
워해머 TV 등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멀티플 씰 코트' 는 색을 얇게 여러번 올려서 얇고 깔끔한 결과물을 얻는 작업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노란색을 멀티플 씰 코트로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프라이밍을 해주세요. 저는 색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회색 프라이밍을 선호합니다. 검은색 프라이밍이라도 문제는 없지만, 어두운만큼 코트의 단계가 늘어납니다. 대신 회색보다 훨씬 묵직한 색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선호하시는 색으로 프라이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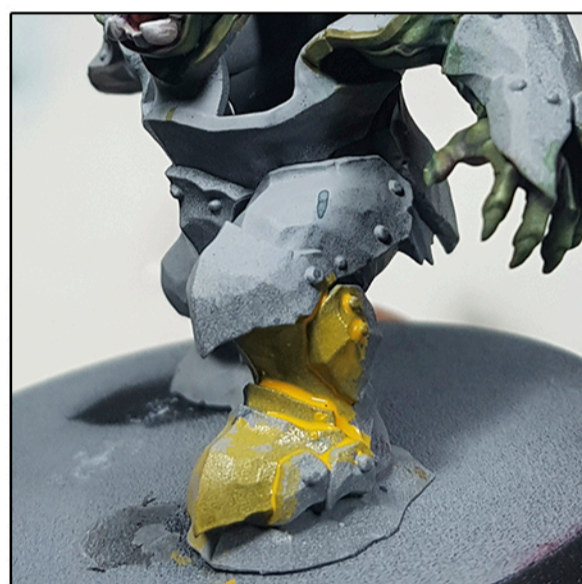
원하는 도료를 팔레트에 덜어줍니다. 저는 GW Base Averland Sunset 을 사용했습니다. 멀티플 씰 코트는 비교적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도료가 마르지 않도록 웻팔레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웻팔레트를 제작하는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로 제작해올리겠습니다.

멀티플 '씰' 코트는 이름대로 도료를 '얇게'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료를 물과 1:1 정도 비율로 희석해줍니다.



팔레트 위에서 도료를 살짝 펼쳐 보았을 때, 그 상태로 멈추는것이 아니라 살짝 수축하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펼쳤을 때 그대로 커다란 방울을 형성하며 고이면 물이 너무 많아서 글레이즈 상태가 된 거고, 중간 정도 크기의 방울들로 나뉘어지며 고이면 물이 더 많아서 워시 상태가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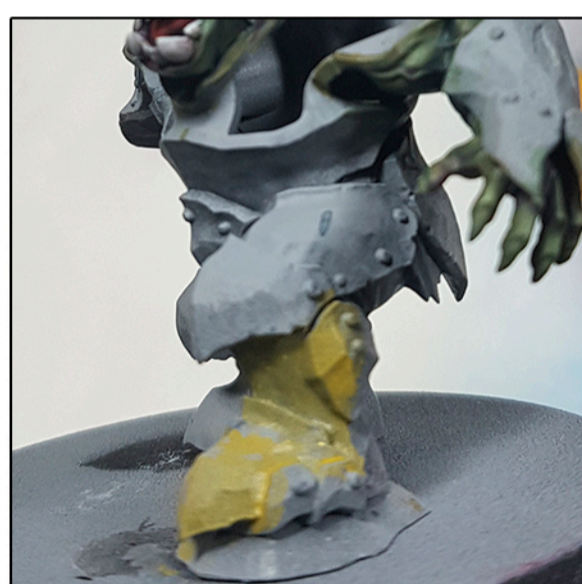
자세한 농도는 첨부한 GIF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이제 묽게 푼 도료를 모델에 발라주세요.

이때 붓에 너무 많은 양의 도료를 머금은 채로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왼쪽 사진처럼 틈새 부분에 도료가 고인 채로 마르게 됩니다. 이 경우 도료가 두껍게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먹히게 됩니다.

왼쪽 사진처럼 됐다면 재빨리 붓을 닦아준 뒤, 마른 붓을 고인 부위 가져다 대주세요. 이러면 붓이 넘치는 도료를 흡수해서, 저 상태로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첫 번째 코트를 올린 모습입니다.

다음 코트를 올리기 전에, 확실히 건조되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로 다음 도료를 올리면, 기존의 도료가 형성한 막이 뭉개지며 지저분한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면 몇 초 내로 빠르게 건조가 가능합니다.

첫 코트가 끝나면 아래가 흰히 비치는데다, 색도 이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점차 깔끔하고 이뻐지니 당황하지마세요. 노란색은 회색 기준으로 3-4번, 검은색 기준으로 6-7번 정도면 깔끔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1회, 2회, 3회, 4회를 올린 모습입니다.

4회를 올리니 구석도 깔끔하고, 오력 모델 특유의 깎여나간 듯 한 디테일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 씰 코트에 사용한 방식은 사실 레이어링과 같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를 응용하면, 부드러운 레이어링도 가능합니다.

